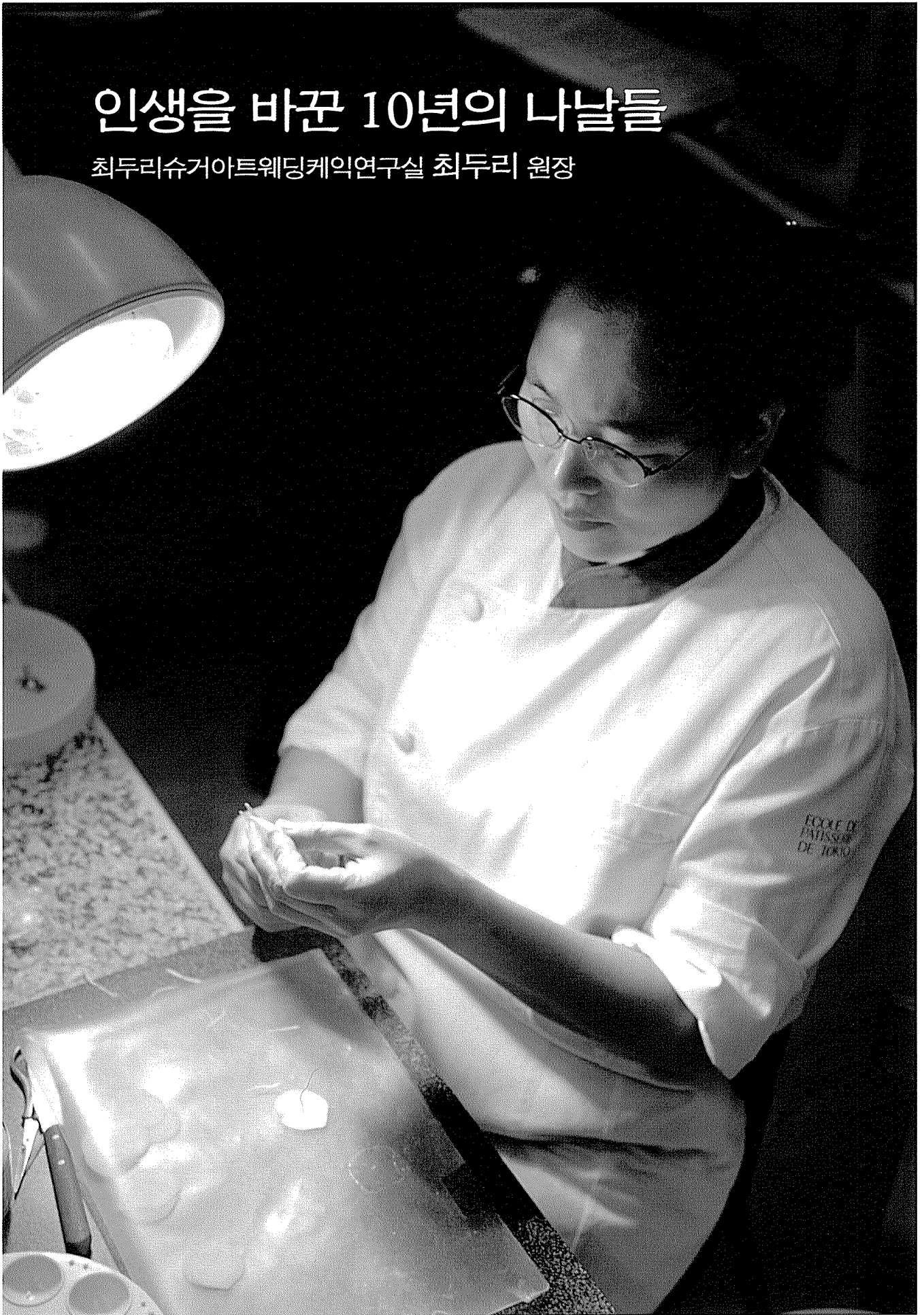


인생을 바꾼 10년의 나날들

최두리슈거아트웨딩케익연구실 최두리 원장



베이커리업계는 타 분야와 비교해 어린 나이에 기술인으로 입문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20대 후반에 제과 기술인으로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통념은 나이가 많을수록 힘든 베이커리일을 배우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선입견과 달리 최두리 원장(45)은 서른이 넘는 나이에 자신의 일생을 다시 시작한 여성 제과인이다. 최두리 원장을 만나 이제껏 그녀가 살아온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삶에 대해 들어보았다.

최두리 원장은 현재 최두리슈거아트웨딩케익연구소를 운영하며 그녀가 익혀온 노하우를 전수하는데 여념이 없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늦은 나이인 33세에 일본 유학길에 올랐던 그녀. 이제 국내 베이커리업계에서 꽤 지명도 높은 제과인의 위치에 올랐지만 미래를 위한 땀방울을 계속 흘리고 있다. 최두리 원장이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된 것은 비단 운이 좋았던 것만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면에서 진취적인 사고와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있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제 와서 회고해 보면 배움에 꼭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꼭 돈이 많아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남편과 함께 일본으로 떠날 때 수중에 가진 돈이 너무 없어 생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모자란 부분은 벌어가면서 준비하고 학업에 정진한 결과 10년간의 유학생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슈거아트의 세계에 눈떠

“남과 갈아서는 다른 사람보다 나올 것이 없다”는 말이 있다. 어쩌면 최두리 원장은 이 말을 몸소 실천하는 삶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제과인이 되기까지의 과정도 그렇지만 현재도 제2의 계획과 그 다음의 목표를 위해 하나 하나씩 착실한 준비를 해가고 있다. 그녀의 학원 주변 한 상인은 “최두리 원장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상가에서도 가장 일찍 문을 열고 또, 가장 늦게 문을 닫지요. 게다가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자신의 일에 성실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해 최두리 원장의 중단 없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슈거 아트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분야지만 최두리 원장에 의해 그나마 인식이 높아진 분야라고 하겠다. 프랑스와 일본에서 설탕공예와 웨딩케이크를 공부한 그녀는 국내에 이 분야가 취약한 실정에서 선구적인 활동을 해왔다. 일례로 그녀의 저서인 「최두리 슈거 아트의 세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은 웨딩케이크를 가르치면서 우리나라에 참고할 만한 서적이 없던 가운데 출판돼 슈거아트가 많은 사람들로 부터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공예 분야의 발전이 미흡하고 현실적인 실용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슈거 아트에 대한 이해는 낮

은 편이었다. 최두리 원장도 처음부터 설탕 공예와 웨딩케이크에 관심을 갖고 이 일에 뛰어들지는 아니었다. 일본에 유학해 동경제과학교 양과자과와 빵과를 졸업한 후 여성인 자신에게 좀더 적합한 일을 찾던 중 1년 동안 웨딩케이크를 배우게 됐다. 초, 중, 고, 연구반과 고급과정에서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과정을 마친 그녀는 스승의 권유에 따라 다시 프랑스에 유학하여 슈거 아트를 한 층 깊게 배우게 됐다.

“웨딩케이크에 전념하게 된 것은 남편의 조언이 컸습니다. 남편은 베이커리일이 늦은 나이까지 하기에 만만하지 않고 제 능력이 더 발휘 할 수 있는 분야가 그 쪽이라고 권유해 주었지요. 어떤 일든 쉬운 것은 없지만 열심히 하다보니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됐고 주위 분들의 도움이 여러모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최두리 원장은 1956년 경북 영덕에서 출생했다. 한 때 TV 드라마에 나왔던 영덕항이 있는 바로 그곳이지만 그녀의 집은 겹겹이 산으로 둘러싸인 두메 산골이었다. 평범하게 농사를 짓던 집안에서 자라난 그녀는 어려서부터 모내기, 김매기 등 힘든 농사일을 도맡아 했다. 최두리 원장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1년 동안 학업을 쉬어야 했다.

“할머니가 워낙 보수적 이셔서 ‘기집애들 공부시키면 눈만 높아진다’고 중학교 진학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언니가 교복 입고 등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워서 화가 났었



▲ 슈거 아트를 배우는 학생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오고 있다.



▲ 팍지원과자공방에서도 한 몫 하는 최두리 원장은 언제나 바쁘게 살지만 여유를 잃지 않는다.

지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한번은 수수밭에 가서 수수를 모두 뽑아 놓았습니다. 측은하게 생각하신 어머니의 도움으로 할머니 몰래 다음해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 합격했으나 집안 사정으로 진학을 포기한 채 76년 포항여고를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와 언니와 함께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최두리 원장이 근무한 무역회사는 입사 동료 여직원이 아직도 근무할 정도로 사장과의 분위기가 좋았다고 한다. 그녀도 그곳에서 10여년 동안 근무를 하며 일본어와 영어 등을 익혀 훗날에 많은 도움이 됐다. 남편인 팍지원 씨를 만난 것은 최두리 원장이 26살의 일이었다. 그 당시에는 남편도 제과인이 아닌 셀러리맨으로 둘은 2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했다.

최두리 원장은 남편과 결혼 후 일상적인 삶을 살던 중 내일에 대한 비전을 생각하게 됐다. 지금과는 다른 전문인으로서 삶. 그것은 어쩌면 너무도 막연한 것이었지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든다는 꿈에 적합한 수단이었다. 여러모로 심사 숙고를 거친 최두리 원장 부부는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88년 9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일본에서의 유학생 생활은 그렇게 녹록한 것만은 아니었다. 최두리 원장은 일본에서 일년 반 동안 랭귀지 스쿨에 다니며 모자란 생활비와 학비를 벌어야만 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한 도로

청소를 비롯해 주방일, 과일 장사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인 삶과의 전쟁을 했다. 필수 코스였던 랭귀지 스쿨을 끝내고 입학한 동경제과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이러한 생활은 계속됐다.

새벽 한두시에 잠이 들고 새벽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하면서도 최두리 원장은 학교 졸업시 3년 개근과 함께 전체 차석 졸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했다.

무엇보다 남편에게 감사해

“제가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남편 도움이 컸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저의 훌륭한 후원자이자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웨딩케이크를 시작하게 된 이면에는 남편의 조언과 지도가 많이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어려운 유학생 생활 중에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두리 원장은 현재 학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틈틈히 남편이 경영하는 팍지원과자공방의 일도 꾸준히 돕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그녀에게도 마음 한 구석에 아쉬움이 자리잡고 있다. 좁 처럼 집에서 쉬어본 적이 없다는 최두리 원장은 하나 있는 아들과 살림에 신경쓰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아내와 함께 일본으로 유학 갔을 당시 남자로서 심적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최두리 원장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서로 합심하여 고난을 헤쳐 나갔습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일이 잘 풀려 결과가 따랐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경험으로 본인이 상황에 구애치 않고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묵묵히 저를 믿고 많이 이해해주는 최두리 원장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아직까지 인생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최두리 원장은 제과에 입문하면서 미래의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그 중 하나가 공부를 마친 후 책을 집필한다는 것이었고 그밖에 후진 양성 등을 구상했다. 현재도 그때 생각한 꿈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 하나 실천하며 나머지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늦은 나이와 여자라는 편견을 깨고 당당히 자신의 일을 성취해 왔던 최두리 원장의 삶에서 배움에는 시기가 따로 없고 주위 상황보다는 자신의 노력이 더욱 소중함을 느낀다. **BA**

〈글·사진/ 정현상 jeong@mbakery.co.kr〉